



전북도, 미세먼지 개선 '전국 1위'

환경부 비상저감조치 평가선 '전국 최고등급' 등 맞춤형 관리종합대책·계절관리제 등 시행 성과

전북도가 미세먼지 개선 전국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평가에서도 전국 최고등급을 획득하는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빛을 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2일 환경부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12개 시도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진행한 결과 전북은 서울에 이어 2위에 오르며 전국 최고등급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주요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등으로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줄이는 것을 뜻한다.

전북은 관내 핵심 미세먼지 배출원인 농업잔재물 불법소각과 같은 생물성 연소를 줄이기 위해 기초단체와 서부지방산림청 등 18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초단체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전북도는 지난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지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종합적 대책 시행에 나서면서 괄목할만한 실적과 함께 전국 최고의 미세먼지 저감율을 보였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추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도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3.3%(39㎍/㎥→26㎍/㎥) 감소해 17개 시도 중 전국 1위의 개선 폭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또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20년~2024년) 추진과 계절관리제(12월~3월) 시행 효과 등에 힘입어 지난 6월 말 현재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 수준으로 점진적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전북도가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 평가에서 전국 최고등급 평가를 받은 것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자체의 협업과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등 대응체계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

고려한 업무협약 체결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 전국 최초로 '전북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전북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생물성 연소 저감을 위한 18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도내 지자체 평가와 인센티브 제공 등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도가 17개 시

도중 미세먼지 개선을 1위에 등극하고 환경부 종합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미세먼지 대응 분야에서 거둔 성과는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력 덕분이다"며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시,군과 함께 청정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가을의 정취 더하는 코스모스

22일 오후 임실군 청웅면의 한 길가에 핀 코스모스가 파란 하늘과 어우러져 가을의 정취를 더하고 있다.
(사진=임실군청 제공)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으로 신고하세요

도, 내달 8일까지 상담창구운영

전북도는 추석을 맞아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오는 10월 8일까지(기간 중 근무일 10일간)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을 운영한다.

핫라인은 소비자 전문상담원을 배치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 인터넷으로 접수, 운영(9일내 처리)하는 소비자 피해구제 창구이다. 매번 명절 특수를 노리는 인터넷소

평몰의 사기 판매, 택배 운송 중 파손, 분실, 배송지연, 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엔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각종 신선식품, 과일 등 물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선물세트 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소비로 전자상거래 쇼핑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전북도(소비생활센터)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소비자 피해 품목 중 인터넷쇼핑몰, 택배·퀵서비스, 선물세트, 상품권 등의 피해에 대한 집중상담 접수를 처리하기로 했다.

이중은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유례없는 긴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장비구리 물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선물세트 구입시 가격비교를 꼼꼼히 한 후 구입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의 방법이다"며,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호상·김윤상 기자

道, 추석맞아 2600억원 푼다

각종 지원금 선지급

전북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600억원의 자금을 풀어 소상공인, 소외계층 지원 및 각종 지원금 선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도는 도민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기초연금 및 생계급여 870억원, 영유아 보육료 144억원, 농·축산업 분야 680억원, 소상공인(일자리)지원 330억원, 하천정비 및 수질개선 520억원, 국가예방법점 58억원 등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500억원을 대기 자금으로 준비해 공사 및 물품대금이나 사회복지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할 경우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달라진 지방계약법을 준수, 기성, 준공 등 검사 기간을 단축하고 기성금, 준공금, 노무비 등의 대가를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다.

더불어 5,000만원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각종 장비 대금과 임금을 직접 지급(공공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제)하고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체불 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해 영세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예방할 계획이다.

전북도 김용만 자치행정국장은 "추석 명절 전 신속한 자금 집행으로 도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방판발 코로나 전파 막아라

도, 시군 합동 일제조사… 방역 사각지대 관리 강화

전북도가 최근 방문판매업체와 연관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추가적인 감염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방문판매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도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판매업체 885개소(다단계 88, 후원방문 192, 방문 605)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실태를 주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점검해왔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본사 소재지를 타 시도에 두고 전북에는 지점, 센터 형태로 각종 소모임과 투자설명회 등 실제 방문판매 활동을 하면서도 신고의 의무가 없는 방역 사각지대인 방문판매업체를 찾아내기 위해 도와 시군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타 시도의 관리목록에 누락돼 전북도 점검대상에 미포함되는 일이 없도록 총리주재 중대본 영상회의에서 공정부에 방문판매 지점, 홍보관 등 사업장 현황을 추가 파악 협조를 요청, 방역 사각지대 최소화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불법 방문판매 영업활동을 적발하는 경우 즉시 시정조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 엄정 조치하고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등록 방문판매업체의 불법영업행위 ▲불법 홍보관 집합행사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 업체 신고·접수를 위해 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

도는 지난 6월 28일부터 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신고센터를 운영 중으로 현재까지 접수된 9건에 대해 수사기관과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해 시정 조치해 왔다.

불법영업에 대한 신고는 전북도 소비자센터(280-3255~6)나 시군 방문판매 해당부서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도 집합금지명령 위반 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직접판매공제조합에 불법 다단계 영업을 신고할 경우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대폭 상향(8월 20일)돼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요구된다.

또한 전북도는 방문판매업체 주요 영업대상인 노인층에 대한 방문판매 사업장 방문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어 시군 주민센터(통·이장협의회), 소비자단체, 대한노인회, 사회복지기관 등에 방문판매업체의 방문자제를 협조 요청했다. /유호상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넉넉하고 풍요로운 추석 보내세요

익산시

한가위를 맞이하여 고마운 분들에게 익산의 마을전자상거래 익산물과 푸른인증 탐마루 선물세트로 진심을 전하세요.

탐마루 TOP MARU 익산물

iksan mall